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의 의류수출 패턴

지혜경⁺ · 이은영^{*}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전임강사⁺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The Pattern of Clothing Export in Leading Countries

Hye-Kyung Ji⁺ · Eun-Young Rhe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5. 10. 24 투고)

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review trends of clothing export in important countries of the world and thus to know the present stage of clothing export in Korea. For the purpose, changes of export amount, competitiveness and product life cycle were analysed in the countries from the 1960's to the 1990'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on the aspect of export amount, industrialized countries lost the lead to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from the 1960's. Developing countries, as China, win the lead. Second, on the competitiveness aspect, industrialized countries lost competitiveness to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before the 1960's. And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were outpaced by China in the export competitiveness from the early 1990's. Third, on the aspect of product life cycle, industrialized countries go first through each period of product life cycle, introduction, growth, maturity and decline, and they all, excluding Japan, sustained period of Maturity for a long tim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go orderly through each period of product life cycle after industrialized countries. As to Korea, duration of each period was short. Specially characteristics of decline period appeared partly in the early 1990's.

From the results, the theory of product life cycle, helping to explain changes in production and trade in new product lines, estimated to applicable to clothing export.

The phenomena, Italy, Hong Kong and America sustain high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clothing market for a long time, is needed to be studied carefully. The study about strong points in their clothing industries and competitiveness drive program be to influence Korean export policy in the future.

Key words: clothing trade(의류무역), clothing Leading Countries(세계 주요 의류수출국), competitiveness(경쟁력), theory of product life cycle(제품주기론)

I. 서론

한국의 의류제품 수출은 의류수출이 처음 시작되었던 1962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989년에는 최고 92억4천3백만 달러에 이르는 등 홍콩, 이태리에 이어 세계 제3위의 의류수출 강대국의 자리에 위치했었다. 그러나 1989년 이후에는 계속 감소하여 2004년에는 1989년의 약 절반 정도인 43억4백만 달러를 수출하는 급격한 하락의 변화를 보였다. 이는 한국 의류제품의 경쟁력 약화가 주 원인으로, 제품주기이론¹⁾에 따르면 한국 의류수출의 이러한 변화는 불가역적인 하락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의류산업은 지난 40여 년간 국가의 주요 수출산업으로서 업스트림(Up-Stream)과 다운스트림(Down-Stream)간의 균형적 발전으로 국내의 환경 변화에 강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고 생산구조도 원료, 사, 직물, 염색, 유통으로 이어지는 다단계로 되어 있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높은 고용 창출과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세계 10대 의류수출국 중 하나로 세계 190여 개국과의 교역을 통하여 풍부한 대외 교역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축적하고 있어서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으며²⁾ 차세대 성장 산업군 중 주력 기간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³⁾.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한국 의류수출의 지속적인 감소 현상과 또 다른 한편의 산업적 기대에 대한 평가를 바라보며, 먼저 한국 의류수출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 의류수출의 현 단계는 오랜 동안의 의류수출 역사를 갖는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들의 장기적 변화와 관련하여 분석될 때 더욱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먼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들의 의류수출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의류수출 자체가 갖고 있는 고

유의 변화 속성을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변화 추이도 예측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본다. 또한 세계적 변화 패턴 속에서 한국 의류수출의 특성과 강점 및 약점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편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무역 패턴의 동태적 변화를 설명하는 제품주기이론에 의하면, 각국의 무역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단계로 진행되는 변화를 거치며 주기 단계에 따라 선진국은 도입기에, 신흥공업국은 성장기에, 후발개도국은 성숙기에 순수출이 증가하고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한다⁴⁾. 본 연구에서는 세계 의류수출 패턴이 이러한 제품주기이론에 적용되는지를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들의 의류수출 변화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세계 의류수출의 주요 변화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고유의 의류수출 패턴도 파악할 수 있어서 향후 한국의 의류수출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제품주기이론의 개념

제품주기이론은 1960년대 초부터 활발히 연구되어 온 이론으로, Vernon(1966)⁵⁾과 Wells(1972)⁶⁾에 의해 전개되었다. 이 이론의 개념은 인간이 태어나서 영화롭게 살다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판매되다가 차츰 쇠퇴하여 마침내 시장에서 사라지거나 제조 품목에서 제외되기까지의 시간적 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특성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수출전략과 제품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데서 시작되었다.

2차 대전 이후 국제무역이론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동요를 거듭해 오면서 스미스에서 헤셔-오린 정리에 이르는 무역이론들이 다각도로 재검토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Vernon(1966)과 Wells(1972)에 의해 개발된 제품주기이론은 국제무역패턴을 설명하는 선도적 이론 중 하나로 선진국간의 중화학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한 공업제품 무역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장기적 시계열 변화로 볼 때 주요 수출국이 처음에는 선진국이었다가 다음에는 신흥개도국으로, 또 그 다음에는 후발개도국으로 변화하는 현상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생산과 수출의 비교우위 입지가 코스트 요인을 쫓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다시 개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동하는 동태적 변화를 보인다고 한다.

전통적 무역이론에서는 정보의 국제적 자유이동, 그리고 정태적 생산함수를 가정하고 있는 반면, 제품주기이론에서는 정보의 국제적 교류가 제한되고 있으며 각 생산제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제품생산과 마케팅 특성이 변화하고 생산 공정은 규모의 경제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소비자의 기호는 국가별로 다르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제품주기론 측면에서 본 국제무역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제품주기의 도입, 성장, 성숙단계에 따른 기술, 숙련 및 미숙련 노동, 자본, 경영능력, 산업구조 등의 제요소들이 각 단계에서의 특정제품에 대한 나라의 수출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이론은 제품의 무역성과를 예측가능하게 해주며, 어떤 제품의 무역패턴을 바꾸기 위하여 또는 서로 다른 주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2. 제품수명주기의 단계와 특성

제품주기의 유형은 모든 제품에 있어서 동일할 것이 아니라 제품의 종류, 속성 혹은 산업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전형적인 제품주기는 일반적으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분한다.

도입기는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때로, 이 단계에서는 생산함수가 노동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이며 단기 조업에 의한 생산을 하게 된다. 생산측면에서는 생산비용은 높고 과학적, 공업적 지식이나 R&D 요소가 중시되며, 수요측면에서는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지만 소비자가 이 제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함으로써 판매 증대는 완만히 이루어진다. 성장기에는 생산측면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며 조업시간의 연장과 생산비 인하가 일어나고 자본집약도가 높아지며, 수요측면에서는 제품이 점차 소비자들에게 수용되기 시작하여 판매와 이익이 급속히 증가하게 된다. 상품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기 때문에 광의의 경영능력을 가진 인적자본에 힘입는 것이 이 단계에서의 비교우위 조건이 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

품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수출이 많지만 때로는 제품개발국에 개발도상국의 제품이 수출될 가능성도 있다.

성숙기에는 제품이 표준화에 이르며 자본투하는 멈추고 기업규모도 고정화된다. 제품이나 생산 공정에 있어서는 기술의 안정으로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며 따라서 경쟁의 기본은 자본이나 기술보다는 마케팅 기법을 통한 가격 또는 제품차별화로 이루어진다. 수요면에서는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단계로서 기업은 점유율 유지에 주력한다. 또한 자본집약적인 제품을 생산하므로 숙련노동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저임 노동력이 중요성을 가지고 미숙련 내지 반숙련 노동의 풍부함이 비교우위의 조건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국가는 개발도상국과 어느 정도 공업화에 성공한 중진국들이어서 제품은 개발도상국들에 의해 선진국이나 상품개발국으로 수출이 이루어진다.

쇠퇴기에는 제품이 신제품이나 대체제품에 의해 밀려나 판매가 급속히 쇠퇴하고 조업도가 급속히 낮아져 이익율이 최저가 되거나 적자가 되는 시기이다. 생산면에서는 기술개발의 여지가 없고 조업도는 낮아져 설비의 폐기나 전환이 이루어지며, 경쟁은 완화되고 조업도도 저하되어 기업의 채산이 맞지 않으므로 전업이나 도산하는 기업이 다수 발생하게 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한국과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들의 의류수출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UN(United Nations)과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발행하는 다음의 의류무역 통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UN에서 발행하는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⁷⁾ 및 "Commodity Trade Statistics"⁸⁾의 통계자료와 무역통계 데이터 추출서비스(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 Extract Service)⁹⁾를 이용하였다. 또한 OECD 발행의 "Foreign Trade by

Commodities”¹⁰⁾의 통계 자료 및 CD-ROM에 수록된 “International Trade by Commodities Statistics”¹¹⁾ 자료를 이용하였다.

2. 분석 기간 및 대상국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들의 의류수출 및 한국 의류수출의 변화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1950년대 ~ 1990년대의 자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국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인 미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룩셈부르크, 네델란드, 스위스, 한국, 홍콩, 중국 등으로 하였다.

3. 비교분석 기준 및 측정방법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들의 의류수출 패턴 비교는 의류수출액, 의류수출 경쟁력, 의류수출 주기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의류수출 경쟁력

각 국의 의류수출 경쟁력은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RCA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RCA지수는 Balassa(1965)¹²⁾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이는 이미 실현된 상품의 수출성공을 통하여 나타난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지수화한 것이다. 수출상품의 시장점유율 변화가 그 상품의 비교우위, 즉 국제경쟁력을 대변할 수 있는 근거는 수출시장점유율의 신장이 해외시장의 수요변화 요인보다는 수출상품의 경쟁력 증가효과에 기인한다는데 두고 있다¹³⁾.

RCA지수는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비가격경쟁력에 의한 비교우위를 담고 있고 수출성공에 기여한 여러 가지 정책적 효과도 포함하고 있어서 다른 경쟁력 지수에 비하여 상당히 일관성있게 한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 주는 지표로 인정되고 있다¹⁴⁾¹⁵⁾.

RCA지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하는데, 만약 RCA 지수값이 1보다 크면 이는 해당 국가의 특정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세계 전체의 그 상품에 대

한 평균적 비교우위보다 높다고 해석하고, 반대로 RCA 지수값이 1보다 작으면 특정국은 그 상품에 있어서 세계의 평균적 수준보다도 약한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다¹⁶⁾.

$$RCA = [(Xi / WXi) / (TX / TWX)]$$

Xi = 한 국가의 i번째 상품의 수출액

WXi = 세계시장에서 i번째 상품의 수출액

TX = 한 국가의 총수출액

TWX = 전세계 총수출액

2) 의류수출 주기단계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들의 의류수출이 어떠한 주기단계를 거치며 변화하였는지, 선진국간 혹은 신흥개발도상국간의 주기단계상에는 차이가 있는지, 한국 의류수출은 현재 어떤 주기단계에 있는지를 1960년대 ~ 1990년대에 대하여 10년대별로 다음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수출액의 변화는 한 국가의 비교우위의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로 사용되는데,¹⁷⁾¹⁸⁾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각 국의 의류수출액의 변화 추이를 통해서 주기단계를 판정하였다. 각 주기단계의 판정은 먼저 10년 정도의 수출액 Y와 시간 X와의 관계식인 회귀 1차식($Y = a + bX$)을 구하여, 회귀계수 b가 $b < 0$ 이면 하락기로 판정하고 $b > 0$ 이면 다시 회귀 2차식($Y = p + qX + rX^2$)을 구하여 $r > 0$ 이면 성장기로, $r < 0$ 이면 성숙기로 판정하였다. 이 때 성장기로 판정된 경우에도 향후 5년의 연평균 예상성장률이 20% 이상이면 성장 전기, 10~20%이면 성장 중기, 10% 이하의 성장 후기, 5% 이하의 성숙기로 세분하여 판정하였다. 이러한 주기판정법은 인구증가법칙에서 도출해 낸 성장곡선(logistic curve)에 근거를 둔 것으로, 다소 임의적이긴 하지만 성장률의 차이를 통해 그 제품의 상대적 비교우위의 변화를 판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¹⁹⁾²⁰⁾.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의류수출 규모의 변화

〈그림 1〉과 같이 세계 의류수출은 1950년대 후반 까지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 선진국들이 세계 의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고 선진국 중에서도 특히 일본은 의류를 비롯한 경공업 제품의 수출에 집중하며 경제발전을 이루기 시작하여 1950년대 후반에는 세계 제 1위의 의류수출국이 되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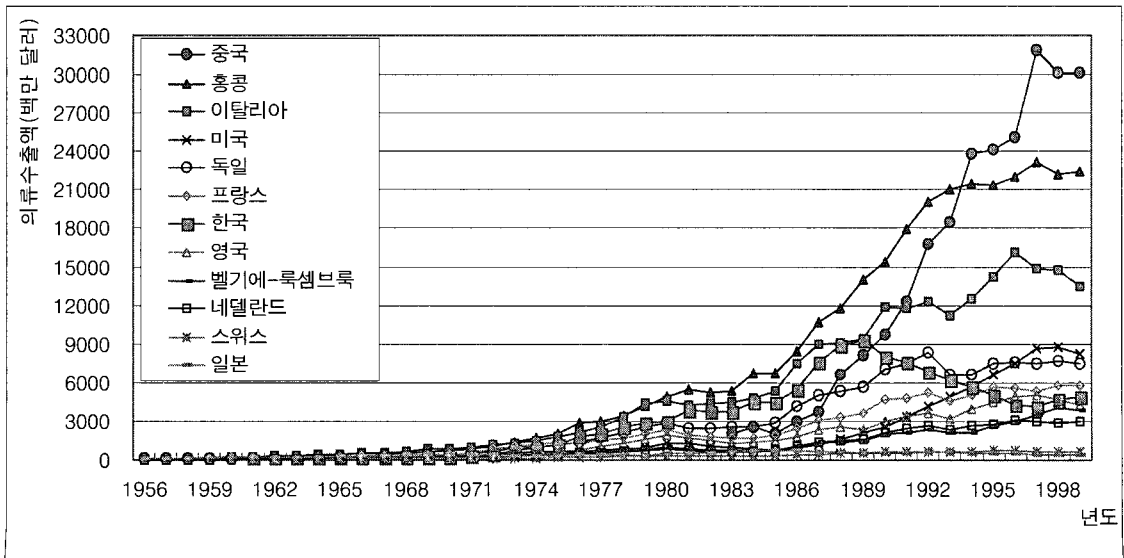
1960년대부터는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도 일본의 경제발전 모델을 쫓아 의류,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의 수출에 집중하며 경제발전을 이루기 시작하여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으로 떠올랐다²²⁾. 신흥공업국들의 의류수출 확대로 세계 의류시장에서 선진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3~1963년 71%에서 68%로 하락하였고 반면 신흥공업국들의 비중은 10%에서 14%로 증가하였다²³⁾.

1970년대에 한국, 홍콩 등 신흥공업국은 미국, 일본, 유럽의 각 국을 제치고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상위의 의류수출국이 되었다. 1971~1980년 세계 총

의류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20.5%의 높은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같은 기간 미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19.4%, 일본 2.3%, 이탈리아 8.5%, 독일 21.3%, 프랑스 18.8%, 영국 20.6%, 홍콩 22.0%, 한국 31.7%로 한국, 홍콩 등 신흥공업국은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총 의류수출에서 선진국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하락한 반면 한국과 홍콩은 1971년 각각 4.0%, 11.0%에서 1980년 7.4%, 12.4%로 크게 증가하였다.

1980년대에 한국, 홍콩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은 세계 최대의 의류수출국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중국을 비롯한 태국, 터키, 포르투갈 등 후발개도국들도 한국, 홍콩 등의 신흥공업국이 경공업 제품의 수출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었던 것처럼 섬유·의류제품 수출에 집중하며 신흥공업국들을 대체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중국은 〈표 1〉과 같이 1987년에 세계 제 6위의 의류수출국으로 성장하였다²⁴⁾.

198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을 비롯한 후발개도국들의 의류수출 확대로 신흥공업국의 세계 의류시장 점유율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세계 의류수출시장은 〈표 2〉와 같이 중국, 홍콩, 이탈리아 등이 1980년대에 이어 계속 의류수출 상위



〈그림 1〉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의 의류수출 변화

〈표 1〉 1970년대, 1980년대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의 변화

(단위 : 10억 달러, %)

세계 의류수출 순위	1973년		1980년		1987년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국가	수출액
1	홍콩	1.4	홍콩	5.0	홍콩	10.7
2	이태리	1.3	이태리	4.6	이태리	9.1
3	프랑스	1.0	한국	3.0	한국	7.5
4	독일	0.9	독일	2.9	독일	5.1
5	한국	0.8	대만	2.4	대만	5.0
6	대만	0.7	프랑스	2.3	중국	3.8
7	벨기에	0.6	영국	1.9	프랑스	3.1
8	영국	0.4	중국	1.7	영국	2.4
9	네덜란드	0.4	포르투갈	0.6	터어키	2.2
10	일본	0.4	태국	0.3	포르투갈	2.1
각 국 비증합계		62.9	60.3		62.1	
세계총의류수출액		12.6	40.4		81.9	

* 1984~1987년 순위에 변동 없었음.

자료: Dickerson(1991)²⁵⁾

〈표 2〉 1990년대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의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 가	1990	1995	1997	1998	1999	연평균 증가율	
							'90~'95	'95~'99
1	중 국	9,669	24,049	31,803	30,048	30,078	20.0	5.8
2	홍 콩	15,406	21,297	23,107	22,164	22,371	6.7	1.2
3	이탈리아	11,838	14,175	14,857	14,742	13,240	3.7	-1.7
4	미 국	2,564	6,651	8,672	8,793	8,269	21.0	5.6
5	독 일	7,881	7,500	7,503	8,014	7,441	-1.0	-0.2
6	터 키	3,330	6,119	6,697	7,058	6,516	12.9	1.6
7	멕시코	587	2,731	5,636	6,603	7,805	36.0	30.0
8	프랑스	4,670	5,621	5,345	5,748	5,690	3.8	0.3
9	영 국	3,041	4,648	5,281	4,920	4,487	8.9	-0.9
10	한 국	7,878	4,957	4,192	4,651	4,871	-8.8	-0.4
11	인 도	2,529	4,110	4,343	4,782		10.2	
12	벨기에	2,000	2,723	3,494	4,042	3,899	6.4	9.4
13	태 국	2,816	5,008	3,686	3,540	3,449	12.2	-8.9
14	포르투갈	3,490	3,805	3,457	3,462	3,151	1.7	-4.6
15	대 만	3,987	3,251	3,410	3,170	2,883	-4.0	-3.0
세계 수출		108,060	157,540	182,280	183,330	186,030	7.8	4.2

자료: Textile Intelligence Limited(2001)²⁶⁾

국의 그룹을 이루었으며 한국과 대만은 1990년에 각각 세계 5위, 7위에서 1999년에 9위, 15위로 하락하였다. 반면에 후발개도국 중 터키, 멕시코 등은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이상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들의 변화 특성을 보면, 1950년대 후반까지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국들이 세계 의류수출의 중심을 이루다가 1960년대 부터는 한국, 홍콩 등 신흥공업국이 선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한국, 홍콩 등의 신흥공업국도 1970~1980년대 선두 수출국의 자리에서 1990년대부터는 후발개도국인 중국에 밀려 2위 그룹으로 물러나는 변화를 보였다. 세계 의류수출의 이러한 장기적

변화로 볼 때 주요 의류수출국이 선진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또 신흥공업국에서 후발개도국으로 변화하는 현상은 Vernon(1966)²⁷⁾의 제품주기이론이 의류수출에도 상당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의류수출 경쟁력의 변화

무역패턴의 동태적 변화를 설명하는 제품주기이론에서는 각국의 무역은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하락기로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생산과 수출의 비교우위 입지가 코스트 요인을 쫓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그 다음에는 다시 개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동하는 변화를 거친다고 한다²⁸⁾. 세계 의류무역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향후 한국 의류수출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해갈 지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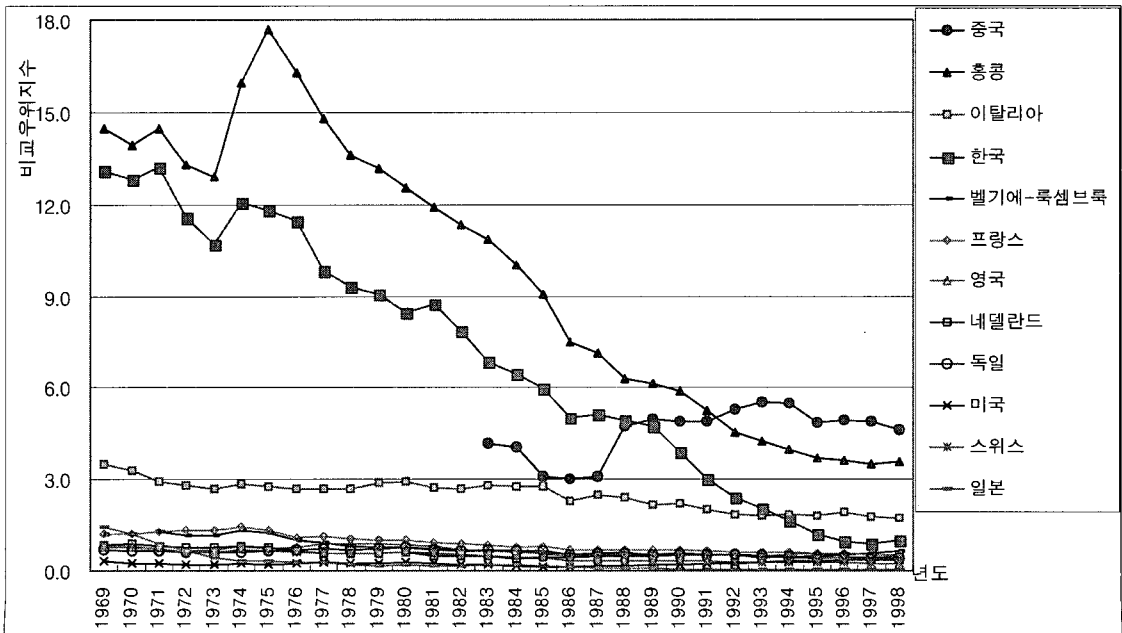
〈그림 2〉에 각국 의류수출의 비교우위지수(RCA 지수)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1969~1999년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보면, 1969~1988년에는 홍콩, 한국,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외의 유럽 각국, 미국, 일본

순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다가 1990년 이후에는 중국의 등장으로 중국, 홍콩, 이탈리아, 한국, 이탈리아를 이외의 유럽국, 미국, 일본 순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의 경쟁력 변화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들은 1960년대 이전에 이미 신흥공업국에게 비교우위를 잃고 현재까지 계속 신흥공업국 및 후발개도국 보다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홍콩 등 신흥공업국들은 1960년대부터 중국이 등장하기 전인 1990년대 초반까지는 계속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중국에게 비교우위를 잃고 중국보다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무역에서 이와 같은 선진국, 신흥공업국, 후발개도국간의 의류수출의 비교우위 이행 과정은 제품주기이론에서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제품의 비교우위가 선진국에서 신흥개도국으로 다시 신흥개도국에서 후발개도국으로 이동한 한다고 하는 설명과 상당히 일치하는 모습이다.

둘째, 의류수출 경쟁력 변화에서 가장 독특한 현



〈그림 2〉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의 의류수출 비교우위(경쟁력) 변화

상을 보인 국가로 이탈리아를 들 수 있다. 이탈리아는 30년 이상 큰 변화 없이 계속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였는데, 다른 선진국들이 신흥공업국 및 후발개도국에 밀려 계속 비교우위가 하락한 것과는 달리 한국, 홍콩, 중국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비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탈리아 다음으로 특징적인 변화를 보인 국가로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분석대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경쟁력을 가졌으나 1980년대 후반 부터는 경쟁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이와 같은 변화는 다른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예외적 현상으로, 이는 1980년대 이후 미국 의류업체의 QR(Quick Response)과 같은 의류산업 구조혁신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째,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유럽국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급격한 하락 추이를 보였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완만한 하락 경향을 띠었다. 한편 일본은 1960년대 후반까지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졌으나 1970년대 전반에 급격한 하락을 거친 이후 계속 가장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홍콩과 함께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에 추월당하며 경쟁력이 급속히 하락하였고 하락 정도도 홍콩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한국 의류수출의 경쟁력 수준 및 변화로 볼 때 한국의 의류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가격경쟁 중심의 의류수출은 세계 경제주기와 환율에 민감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구를 바탕으로 한 더 낮은 임금 노동력을 가진 후발개도국에게도 쉽게 침식당하므로 가격 이외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쿼터제한이 폐지된 완전 경쟁체제의 자유무역시대에서 국제적인 노동 분업 및 국가간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그 결과 혁신적인 경쟁우위를 가진 국가와 기본적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대량저가 생산국간의 제품의 부가가치의 편차는 더욱 커질 것이므로²⁹⁾ 향후 한국의 의류수출 정책은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차별화에 중점을 주어져야 할 것이다.

3. 의류수출 주기단계의 변화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들의 의류수출이 제품주기론에 따른 주기단계를 거치며 변화하였는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주기단계의 시차는 어느 정도인지, 한국 의류수출은 현재 어떤 주기단계에 있는지를 1960년대~1990년대에 대하여 10년 간격으로 분석하였다. 특별히 한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 의류수출 추이가 1997년을 경계로 이전의 급격한 하락기와 그 이후에 소폭 증가한 특성을 고려하여 1990년대를 두 기간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각 국의 의류수출 주기단계 변화를 보면, <표 3>과 같이 각 국은 대체로 성장기, 성숙기, 하락기의 주기단계를 거치며 변화하였고 각 주기단계의 경과 기간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경우, 미국은 1960년대 이전에 이미 성장기를 거쳐 1960~1990년에는 오랜 동안의 성숙기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1960~1970년대에 성장 후기를 거쳐 1980년대에는 성숙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락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국 모두는 1960년대에 성장 전기 또는 성장 중기를 거쳐 1970년대 이후에는 장기간 동안 성장 후기 또는 성숙기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국들의 이러한 변화는 미국보다 주기단계의 진행 정도가 늦기는 하지만 미국과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신흥공업국인 한국과 홍콩은 모두 1960년대에 성장 전기, 1970년대에 성장 후기의 모습을 보여 같은 주기단계의 변화 과정을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진행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즉 홍콩은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에도 계속 성장 후기를 지속하였고 1990년대에 는 성숙기에 접어든 반면 한국은 1980년대에 홍콩보다 빨리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1991~1997년에는 이 기간 동안의 급격한 의류수출 감소

〈표 3〉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의 의류수출 주기단계 변화

국 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미 국	성숙기	성숙기	성장 전기	성숙기
일 본	성장 후기	성장 후기	하락기	하락기
이탈리아	성장 중기	성숙기	성숙기	성숙기
독 일	성장 전기	성숙기	성숙기	성숙기
프랑스	성장 전기	성숙기	성숙기	성숙기
영 국	성장 중기	성숙기	성장 후기	성숙기
벨-룩	성장 중기	성숙기	성장 후기	성장 후기
네델란드	성장 중기	성숙기	성장 후기	성숙기
스위스	성장 중기	성장 후기	성숙기	성숙기
홍 콩	성장 전기	성장 후기	성장 후기	성숙기
한 국	성장 전기	성장 후기	성숙기	1990-1997: 하락기 1997-2001: 성숙기
중 국			성장 전기	성숙기

로 하락기의 특성을 보였다. 1997년 이후에는 다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면서 성숙기의 특성을 띠었다.

한편 후발개도국인 중국은 1980년대에 성장 전기를 거쳐 1990년대에는 성장 중기 혹은 성장 후기의 특성을 보이지 않고 바로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들의 의류수출 주기단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 보다 선행하여 주기단계 변화 과정을 거쳤고 일본, 유럽국들은 미국의 뒤를 이었으며, 신흥공업국, 후발개도국들도 순차적으로 그 뒤를 이어 주기단계를 거친 것으로 나타나 제품주기이론이 의류 무역에도 상당히 적용되는 특성을 보였다.

한편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들의 의류수출 주기단계가 대체로 성장기, 성숙기, 하락기 순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도 일본을 제외한 미국 및 유럽의 선진국들은 1960년대 혹은 1970년대 이후에도 하락기에 접어들지 않고 계속 성숙기가 연장되고 있었으며 홍콩도 한국보다 각 주기단계가 연장되면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및 유럽 각 국, 홍콩의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주목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1997년 이후 한국의 의류수출이 조금씩 증가하면서 성숙기의 특성을 띠고 있는 있지만 1960년~1997년 동안 이들 국가에 비해 각 주기단계가 빠르게 진행하였고 특히 1991~1997년에는 하락기의 특성도 나타났으므로 한국은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의 주기단계 지속 노력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세계 주요 의류수출국들의 의류수출 변화를 수출규모, 경쟁력, 주기단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의류수출의 현 단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류수출 규모면에서 선진국들은 1960년대부터 신흥공업국에게 선두 수출국의 자리를 내주었고, 1990년대부터는 후발개도국인 중국 등이 선두수출국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둘째, 경쟁력 면에서도 선진국들은 1960년대 이전에 신흥공업국에게 비교우위를 잃었고,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신흥공업국들도 후발개도국인 중국 등에게 경쟁력 우위를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기단계 면에서는 선진국은 신흥공업국에 선행하여 각 주기단계를 거쳤으며 일본을 제외하고는 성숙기 기간을 오랜 동안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흥개도국 및 후발개도국도 선진국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주기단계를 거쳤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각 단계의 지속 기간이 짧고 특히 1990년대 전반기는 하락기의 특성도 보여 향후의 의류수출 경쟁력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볼 때 각 국의 무역은 도입

기, 성장기, 성숙기, 하락기로 진행되는 변화를 거치며, 수출중심국 및 경쟁력의 우위국은 시계열적으로 선진국, 신흥개도국, 후발개도국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제품주기이론이 의류무역에도 상당히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세계 의류시장에서 이탈리아, 홍콩, 미국 등이 오랜 동안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 의류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의류업계는 이들의 산업적 강점과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을 심층 분석하여 향후의 의류 수출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 1) Vernon, R. (196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life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pp. 190-207.
- 2) 섬유산업연합회, 자료검색일 2005. 10. 10. 자료출처 <http://www.kofoti.or.kr>
- 3) 산업연구원 (2003). 차세대 성장동력 발전전략, p. 86.
- 4) Vernon, R. (1966). 앞의 논문, pp. 190-207.
- 5) 위의 논문, pp. 190-207.
- 6) Wells, L.T. (1972). *The product life cycle and international trade*. Boston: Havard University Press. pp. 3-33
- 7)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1956-1998.
- 8) UN, *Commodity Trade Statistics*. 1990-1194.
- 9) UN, *Statistics Division의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 Extract Service*.
- 10) OECD, *Foreign Trade by Commodities*. 2000.
- 11) OECD. *International Trade by Commodities Statistics CD-ROM*.
- 12) Balassa, B. (1965). Trade Liberaliz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33, May, pp. 99-123.
- 13) 이영선 (1980).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비교우위분석과 전망. 국제경제연구원. pp. 27-49.
- 14) 위의 책, pp. 27-49.
- 15) 김연학 (1986). 제품주기이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0-69.
- 16) 위의 책, pp. 60-69.
- 17) 서성한 (1980). 한국 무역의 product life cycle모델 선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40-55.
- 18) 김연학. 앞의 논문, pp. 50-69.
- 19) 백방선 (1982). 제품수명주기에 관한 제품 포트폴리오의 관련 모형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05-115
- 20) 한희영 (1982). 마아케팅관리론. 다산출판사. pp. 340-345.
- 21) Dickerson, K.G. (1991). *Textiles and apparel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pp.103-131.
- 22) 김수근 (1992). 경제성장이야기. 한국경제신문사, pp. 115-119.
- 23) Dickerson, K.G. 앞의 책, pp. 103-131.
- 24) 위의 책, pp. 132-161.
- 25) 위의 책, pp. 132-161.
- 26) Textile Intelligence Limited (2001). *Textile outlook international*. January. p. 105.
- 27) Vernon, R. 앞의 논문, pp. 190-207.
- 28) 위의 논문, pp. 190-207.
- 29) 이은주, 권경란 (2001). 한국 의류 및 섬유산업의 경쟁우위 향상에 관한 제언. *한국의류학회지*, 25(2), pp. 458-469.